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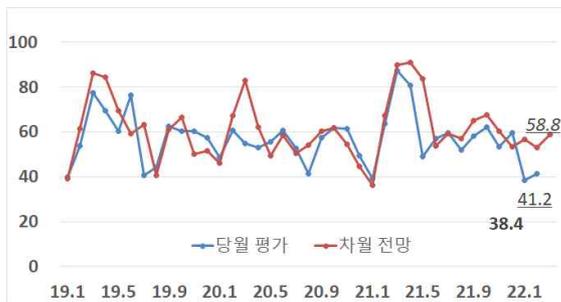
I. 2022년 2월 건설경기평가 및 3월 전망

■ 2월의 경기평가는 전년 동월과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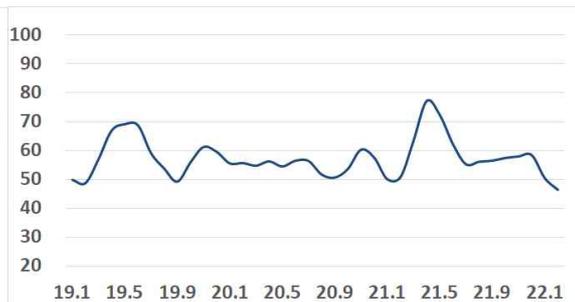
- 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1.2로 전월(38.4)과 유사했지만(+2.8p), 전년 동월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3월의 전망치도 58.8로서 전년 동월과는 큰 차이를 보였음. 응답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전방위적인 자재 가격의 상승, 기능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대업종화에 따른 수주기회 저하, 종전보다 늘어난 안전관리부담의 증가(중대재해) 등이 지적됨.
- 수도권은 42.9(46.7→42.9)으로 소폭 하락(-3.8p), 지방은 40.7(36.4→40.7)로 소폭 개선됨(+4.3p).

〈표-1〉 2022년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3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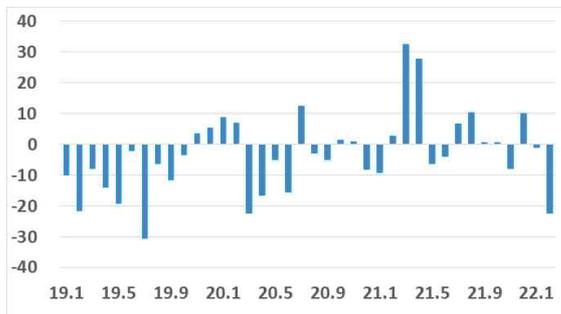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2월 평가	41.2	63.5	42.9	40.7	26.9	49.4
2022년 3월 전망	58.8	89.8	53.1	60.7	38.5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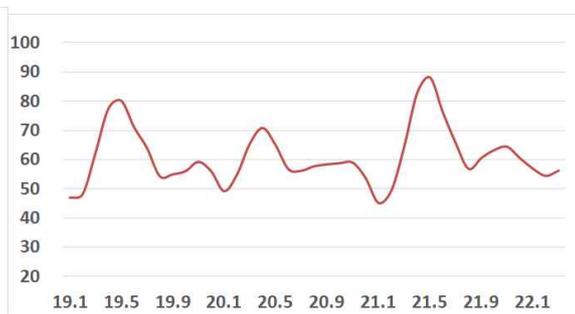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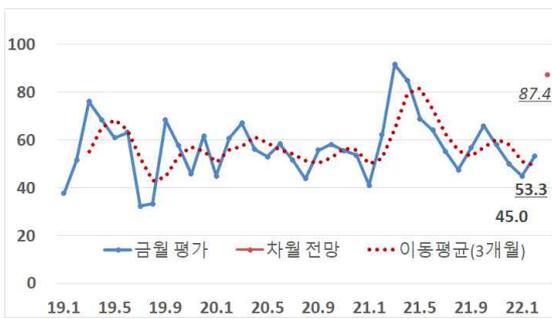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년 동월보다 크게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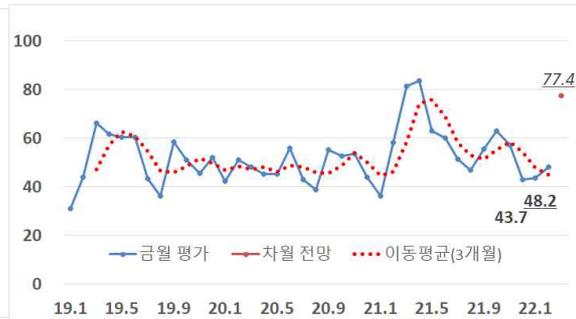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3.3(45.0→53.3)으로 전월보다 개선(+8.3p), 하도급수주는 48.2(43.7→48.2)로 높아졌지만(+4.5p) 전년 동월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음.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6.7→46.9)에서 전월과 유사(+0.2p), 지방(44.6→55.3)은 크게 개선되었음(+10.7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0.0→46.9)은 하락(-3.1p), 지방(42.4→48.7)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됨(+6.3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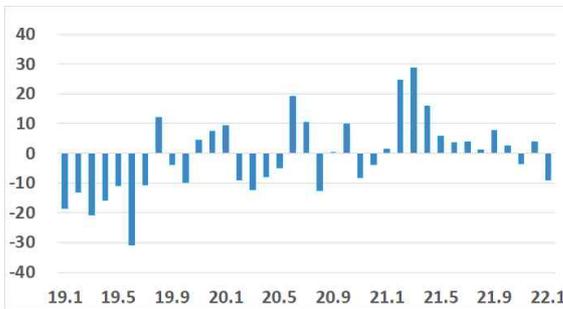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2월 평가	53.3	62.3	46.9	55.3	38.5	59.3
	2022년 3월 전망	87.4	88.6	77.6	90.7	73.1	90.1
하도급 수주	2022년 2월 평가	48.2	58.1	46.9	48.7	38.5	56.8
	2022년 3월 전망	77.4	85.0	75.5	78.0	73.1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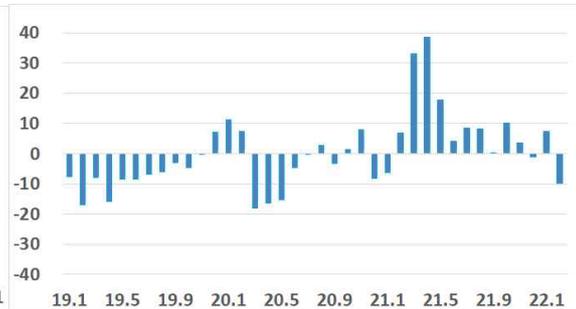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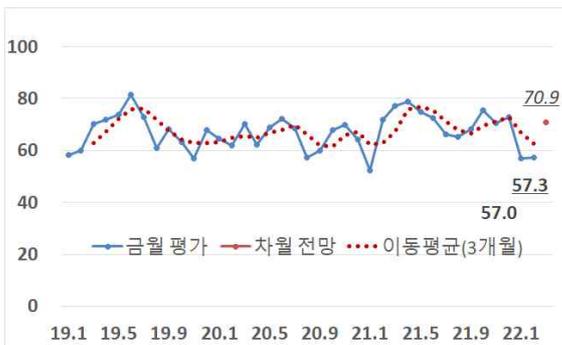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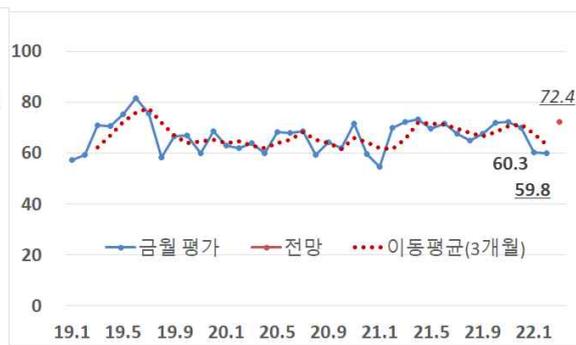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3(57.0→57.3)으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0.3p), 전년 동월(71.9)과 비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73.3→56.1)은 전월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반면(-17.2p), 지방권(58.9→58.0)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0.9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9.8(60.3→59.8)로 전월 수준이었지만(-0.5p), 전년 동월(70.1)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66.7→55.1)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11.6p), 지방(58.7→58.0)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0.7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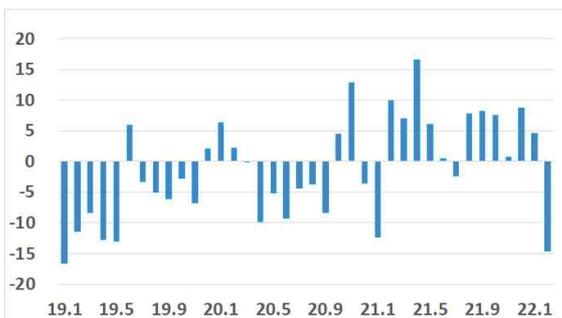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2월 평가	57.3	71.9	55.1	58.0	61.5	55.6
	2022년 3월 전망	70.9	78.4	61.2	74.0	61.5	72.8
자금조달	2022년 2월 평가	59.8	70.1	65.3	58.0	61.5	63.0
	2022년 3월 전망	72.4	77.8	59.2	76.7	57.7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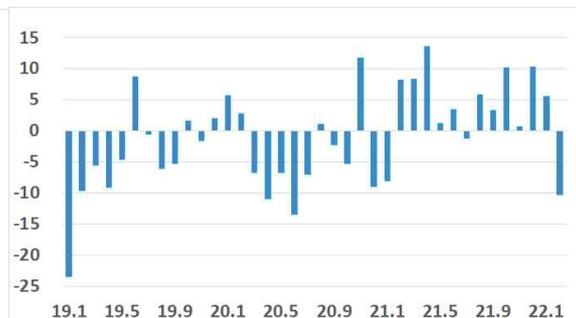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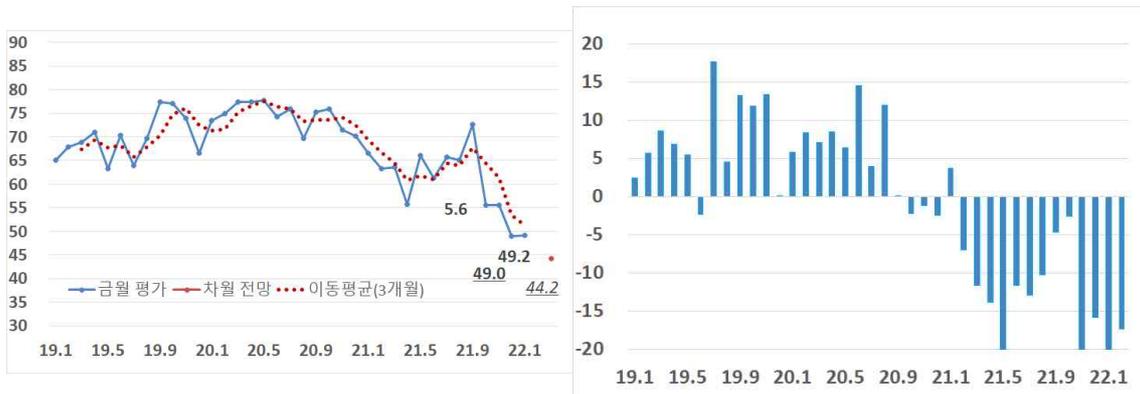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전월에 이어 악화 지속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49.2(49.0→49.2)로 전월의 수준이 지속되었으며(+0.2p), 이는 응답업체들의 체감평가가 좋지 않았던 전년 동월(63.3)과도 큰 차이를 보인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53.3→46.9)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6.4p), 지방(47.9→50.0)에서는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2.1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3.8(67.5→63.8)로 전월과는 차이가 적었으나(-3.7p),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조사됨.
 - 수도권(76.7→61.2)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15.5p), 지방(65.3→64.7)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됨(-0.6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2월 평가	49.2	66.5	46.9	50.0	53.8	48.1
	2022년 3월 전망	44.2	68.3	36.7	46.7	38.5	43.2
인력수급	2022년 2월 평가	63.8	86.2	61.2	64.7	65.4	63.0
	2022년 3월 전망	60.3	77.8	61.2	60.0	65.4	63.0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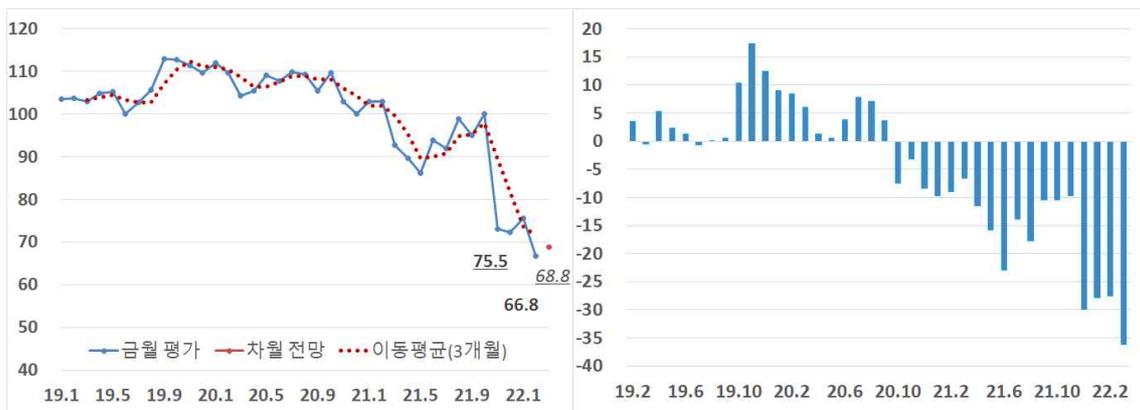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 지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자재수급지수도 유사한 추세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25.1(29.1→25.1)로 악화세를 지속했으며(-4.0p), 자재문제가 심각했던 전년 동월보다도 난감한 수준임. 차월(27.6)에도 개선될 전망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성수기인 봄이라는 계절적 상황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40.0→26.5)에서 크게 악화(-13.5p), 지방(26.4→24.7)은 별다른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1.7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6.8(75.5→66.8)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8.7p), 이는 상황이 좋지 못했던 전년 동월(103.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90.0→69.4)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으며(-20.6p), 지방(71.9→66.0)에서도 전월보다 낮은 수치가 조사됨(-5.9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2월 평가	25.1	56.3	26.5	24.7	19.2	23.5
	2022년 3월 전망	27.6	48.5	20.4	30.0	23.1	25.9
자재수급	2022년 2월 평가	66.8	103.0	69.4	66.0	61.5	70.4
	2022년 3월 전망	68.8	98.8	77.6	66.0	80.8	72.8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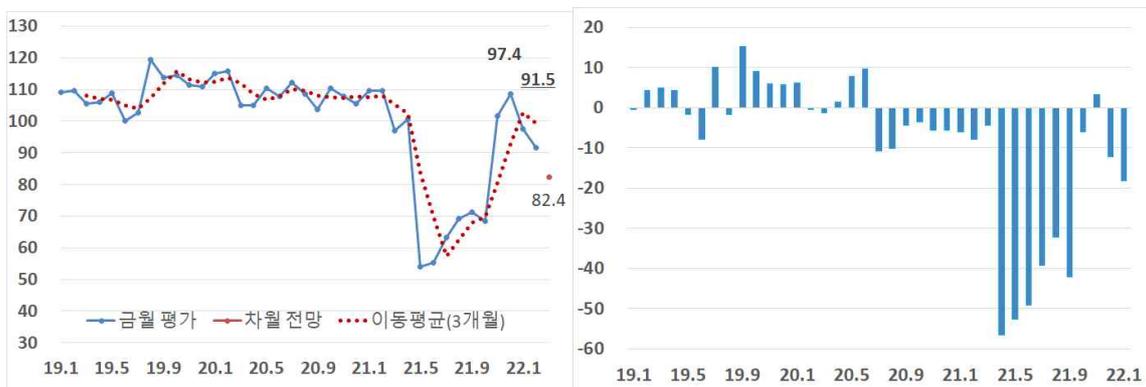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하락세 지속, 장비수급지수도 동일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0.8(55.6→50.8)으로 소폭 하락했으며(-4.8p), 차월(51.8)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1.0p). 이는 전년 동월보다 현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유가변동과 착공현장 증가 등의 영향요인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개선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70.0→57.1)의 하락세가 컸으며(-12.9p), 지방(52.1→48.7)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보였음(-3.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91.5(97.4→91.5)로 소폭 하락했으며(-5.9p) 전년 동월(91.5)보다 낮았지만, 통상적으로 건설장비의 수급지수는 100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93.3→89.8)에서 소폭 하락(-3.5p), 지방(98.3→92.0)에서도 역시 하락세로 조사됨(-6.3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2년 2월 평가	50.8	73.7	57.1	48.7	57.7	49.4
	2022년 3월 전망	51.8	71.9	46.9	53.3	53.8	53.1
장비수급	2022년 2월 평가	91.5	109.6	89.8	92.0	88.5	92.6
	2022년 3월 전망	82.4	101.8	83.7	82.0	80.8	85.2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1.2	63.5	42.9	40.7	26.9	49.4	
	차월 전망	58.8	89.8	53.1	60.7	38.5	65.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3.3	62.3	46.9	55.3	38.5	59.3
		차월 전망	87.4	88.6	77.6	90.7	73.1	90.1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8.2	58.1	46.9	48.7	38.5	56.8
		차월 전망	77.4	85.0	75.5	78.0	73.1	82.7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57.3	71.9	55.1	58.0	61.5	55.6
		차월 전망	70.9	78.4	61.2	74.0	61.5	72.8
	자금조달	금월 평가	59.8	70.1	65.3	58.0	61.5	63.0
		차월 전망	72.4	77.8	59.2	76.7	57.7	76.5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9.2	66.5	46.9	50.0	53.8	48.1
		차월 전망	44.2	68.3	36.7	46.7	38.5	43.2
	인력수급	금월 평가	63.8	86.2	61.2	64.7	65.4	63.0
		차월 전망	60.3	77.8	61.2	60.0	65.4	63.0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25.1	56.3	26.5	24.7	19.2	23.5
		차월 전망	27.6	48.5	20.4	30.0	23.1	25.9
	자재수급	금월 평가	66.8	103.0	69.4	66.0	61.5	70.4
		차월 전망	68.8	98.8	77.6	66.0	80.8	72.8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0.8	73.7	57.1	48.7	57.7	49.4
		차월 전망	51.8	71.9	46.9	53.3	53.8	53.1
	장비수급	금월 평가	91.5	109.6	89.8	92.0	88.5	92.6
		차월 전망	82.4	101.8	83.7	82.0	80.8	85.2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